
 인천광역시		보 도 자 료		 인천의꿈* 대한민국의미래	
		배포일자	2023년 2월 23일(목) 총 2매		
담당 부서	장애인복지과	담 당 자	• 장애인서비스팀장 정보영 ☎440-2936 • 담당자 윤선영 ☎440-2965		
사진(이미지)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발달장애인에 인천형 활동서비스 월 44시간 추가 지원

- 만6세~만65세 미만 발달장애인 대상, 일상·여가생활 향유 도와 -
- 국비 월 132~176시간에 인천형 추가 지원 ... 올해 1,301명에 지원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2023년 성인·청소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원계획을 밝혔다.

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는 이용자 욕구를 반영해 취미·여가, 자립준비, 관람·체험, 자조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.

활동서비스는 이용자 연령에 따라 ‘주간활동서비스’와 ‘방과후 활동서비스’로 구분된다.

‘주간활동서비스’는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된다. 지역사회 다양한 장소·기관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상활동을 스스로 선택하고, 동료와 함께 참여하면서 낮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. 국비 지원으로 월 132~176시간이 제공된다. 특히 시는 국비 지원 시간 외에 서비스 시간이 더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‘인천형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’ 월 44시간을 추가 제공하

기로 했다. 이렇게 되면 대상자들은 월 최대 176~ 220시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 시는 올해 총 748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.

* (지원인원) 2022년 실적: 487명(국비 304명, 인천형 183명)

→2023년 계획: 748명(국비 552명, 인천형 196명)

* (지원시간) 2022년: 월 169시간(기본형)~209시간(확장형)

→2023년: 월 176시간(기본형)~220시간(확장형)

‘방과후 활동서비스’는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된다. 2~4인 그룹 활동을 통해 직업탐구 및 일상·여가생활 향유 등 성인기 자립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. 올해는 지난해보다 22시간이 늘어, 총 66시간의 서비스를 매월 받을 수 있다. 시는 올해 총 553명을 지원할 계획이다.

* (지원인원) 2022년 실적: 339명→ 2023년 계획: 553명

* (지원시간) 2022년: 월 44시간→2023년: 월 66시간

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, 신체적·정신적 사유로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리신청도 가능하다.

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“많은 발달장애인이 활동서비스 지원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함은 물론 자립기반을 다질 수 있길 바란다.”고 말했다.

※ 보건복지국 기자간담회 관련 사진은 인천시 홈페이지 11시 이후

‘인천시 인터넷방송’(<http://tv.incheon.go.kr/>) ‘포토인천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